

2019년 12월 15일 "(복음) 죄사함 통해 영광의 존재로"(롬 8:18-21)

<도입>

지난 두 주간 나눈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의 연장선에서 확장된 좋은 소식을 살피겠습니다.

[1]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하여(21 절)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당신의 사랑의 계획과 뜻이 온 피조계에 충만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사 11:6-8 말씀입니다. 이 때 피조물의 관계가 얼마나 질서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지를 묘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에덴)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러한 모습과 대조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합니다. 그 결과 피조물은 하나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자기 본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다스림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보혈로 인한 죄사함입니다.

[2] 죄사함(용서의 확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죄사함(용서 -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시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전의 성품과 관점과 방식에 방향전환을 일으킵니다(회개). 이 방향전환은 새 삶을 얻은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얻게 합니다.

죄사함 관련본문: **엡 1:7-10**(그리스도 사역의 요약)

7 절: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죄 용서)를 받음'

8 절: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심'

9 절: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비한 뜻을 알려주심'

10 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심'

통일시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시고 땅에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되게 하셔서 하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사람을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의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새 창조).

이 구절의 맥락을 보면 하늘과 땅의 통일은 죄사함(**7 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에 관해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사람의 모든 도덕적 죄와 더불어 죄의 뿌리를 포함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정도에서 벗어났음을 뜻합니다(신약). 따라서 죄사함이란 사람이 가야할 정도(바른 인생의 목표와 방향)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도록 변화를 일으킵니다.

죄사함으로 인해 얻은 목표는 먼저 존재에 기반을 둡니다. 즉, 죄사함 받으면 아버지 집의 귀한 아들/딸로서 축복을 상속받는 자라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3] 영광 돌리는 영광의 존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쓰고 당하신 십자가 죽음 속에서 얼마나 인간의 큰 죄가 폭로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를 숨겨서 해결하지 않고 폭로하여서 해결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폭로된 죄를 인정하며 동시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본연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발견하는데 있습니다. 인간을 영광의 존재로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믿고 바라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사신 삶을 하나씩 내 삶에 실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고후 3: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게 일입니다"

<맺음>

주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의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부어지는 사랑에 붙들림 받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랑과 희망의 좋은 소식이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고 사는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죄만 해결될 뿐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되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